국내
긴급시황

2026.3.9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유가 급등과 한국 증시 영향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유가가 급등
유가의 상승폭과 지속 기간이 확대되는지 여부가 한국 증시 핵심 변수로 판단

KEY DRIVER

-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기준 브렌트유와 WTI가 배럴당 109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2022년 7월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유가 급등의 배경은 다음의 복합 요인으로 요약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제한으로 주요 산유국의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일부 감산을 발표한 점. 2) 이란이 최고지도자 후계자로 미국이 견제하는 인물인 '모즈타파 하메네이'를 내정함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점. 3) 미국이 해협 운항 선박에 대한 호위, 보험 지원 등 구체적 대응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점.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유가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 전반에 다음과 같은 경로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운송비 상승. 해상 운임 상승으로 물류, 소재, 필수소비재 업종의 비용 부담이 일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제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2) 에너지 비용 증가. LNG 및 전력 단가 상승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수요 산업에 단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 수준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 전반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유동성 경로. 유가 상승이 글로벌 물가를 자극할 경우, 긴축 정책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 추세가 1~2개월 내 안정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의 지속 여부는 1) 이란 새 지도부의 대미 대응 기조, 2)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 외교적 반응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상황은 양측이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란이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긴장이 미국 이란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가의 상승폭과 지속 기간이 3월 말 이후로 확대되는지 여부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판단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